

세계 속의 경주건설의 고민

Anxiety about Kyungju-Placing the Old City on the World Map

권오찬 / 경주문화원장
by Kwon Oh-Chan

경주의 도시계획이나 또는 행정은 미래지향적이라는 일반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 그 근본은 회고적이 안될 수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신라의 영광이 내일의 세계에서는 영광이 될 수 없다 하더라도 신라를 벗어날 수는 없다. 이런 뜻에서 오늘의 경주 도시계획을 말하는데도 먼저 옛 신라의 서울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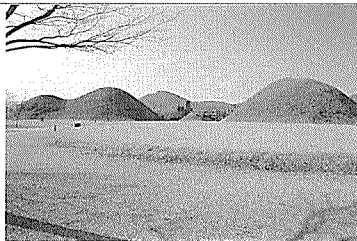
1. 신라의 옛서울 경주

경주는 우리나라 도시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도시이다. 삼국유사의 단군기에 의하면 단군의 阿斯達에서 立都했다는 기록이 있으나 그것은 신화적인 기록이니 예외로 하고 고구려는 卒本(BC37년) 국내성(AD3년) 환도(209년)끝으로 평양(427년)으로 옮겼고 백제도 하남 위례성(BC18년) 漢山(BC5년) 웅진(47년) 부여(538년)등으로 옮겼으나 660년에 멸망했다(괄호 안은 천도한해). 그러나 신라는 건국(BC57년) 이래 멸망할 때(935년)까지 한 번도 서울을 옮기지 않았다. 다만 神文王9년(689년)에 達句伐로 옮길 것을 계획한바 있었으나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신라는 국명과 수도명이 동일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것은 신라가 정복에 의해서 이루어진 국가가 아니고 6부의 부락이 연맹해서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한 곳이 중심이 될 수 없고 6부의 중심이 공동의 중심이고 그 영역이 곧 나라의 영역이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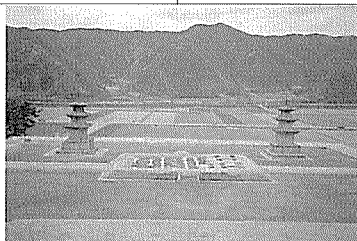
도시로서의 신라가 6부의 각각의 중심지와 구

별되어 독자적인 발전을 하게 된 것은 왕권이 강화되고 전체체가 갖추어져가는 과정과 일치한다. 도시로서의 신라(앞으로 서라벌)의 발전은 炤知王 12년(490)에 처음으로 서울에 시장을 설치하고 智證王 10년에는 東市가 설치되었다는 三國史記의 기록으로 짐작될 수 있으며 法興王 7년(520)의 律令정치 시행은 도시의 발전을 가속화시켰을 것이다. 그 후 徐羅伐은 신라의 팽창에 비례해서 확장되었으며 3국 통일의 결과 統一新羅의 수도로서 영화를 누렸으니 唐나라의 長安과 함께 세계의 길은 서라벌로 통했고 서라벌의 길은 세계로 통하게 되었다. 전성시 17만8천9백36호에 1천3백60坊 35金入宅 4節遊宅이 있었으며 그 영역은 55里였다. 49대 憲康王이 月上樓에서 바라본 서울의 거리는 초가 하나 없고 집들은 서로 처마와 담이 맞붙어 있었고 노랫소리와 피리소리는 길거리에 가득하여 밤낮으로 끊어지지 않았다. (三國史記 憲康王 6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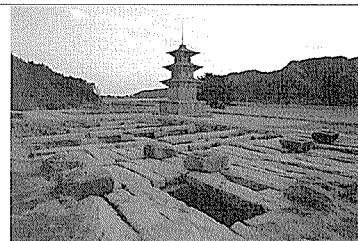
그러나 신라 전성시대의 서라벌의 도시구성에 대한 정확한 구조는 알 수 없으며 일제시대부터 많은 학자들이 王京의 복원작업을 시도했으나 자료의 빈곤으로 상상의 영역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 몇 가지 자료로 그 대체의 모습을 그려본다면 王의 在城인 半月城과 통일후 복잡해진 행정업무를 다루었던 嚮月成이 남북으로 마주 보면서 이 지구를 중심으로 도시가 기능별로 구성되어 있었다. 재상인 車得公이 安吉에 자기 집의 소재를 “皇龍 皇聖二寺之間”이라고 했는데(三國遺事 文虎王 法敏條) 재상의 사저가 사찰 가운데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이 지구는 지금 “구룡리”인데 皇龍寺 皇聖寺 皇陵寺 芬聖寺등 “皇”자가 있는 九寺가 있었음을 알 수 있고 末香寺 普門寺도 여기에 있으니 “寺寺星張 塔塔雁行”이라고 말한(三國寺 猨蹄鎭新州)것도 이 지구일테니 사찰과 세도가의 저택지구였을 것이다. 宮城의 서쪽 문이 歸正門인데 景德王은 여기서 인연있는 스님 忠談師를 만났으니 南山三花巖으로 통하는 큰길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그 서편에 35金入宅의 하나인 財貫井址가 있으니 이 일대가 호화주택 지구임을 알 수 있다. 재매정과 蚊川을 사이에 둔 南山기슭에 天宮寺址가 있음을 미루어 볼 때 南山기슭 일대가 유흥기였으며 金入宅과 이웃하고 있었다는 점에도 존재의 이유



시내에 있는 능 (사진 최영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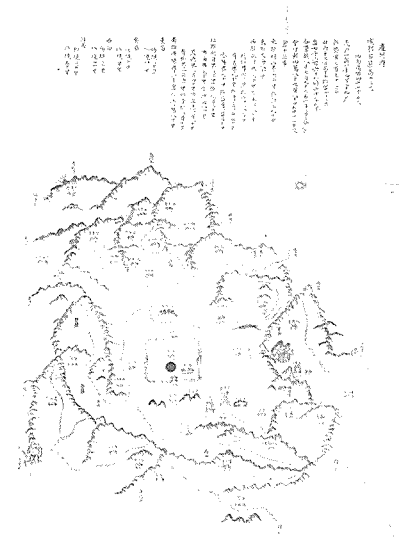


감은사지 터와 좌, 우의 3층 석탑



문무왕의 설화가 담긴 감은사지 금당의 유구

를 찾을 수 있다. 현강왕이 月上樓에 올라 장안의 장관을 바라보았을 곳은 “月上樓”라는 이름으로 미루어 王城의 동쪽이었을 것이며 여기는 일반 백성들의 주거 지구였을 것이다. 이렇게 서라벌은 관아 지구 사찰 지구 金入宅²³⁾ 지구 민간 지구



慶州府池圖, 18세기 중엽, 『慶州都會左通地圖』첩 (출처: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5, 『조선시대 지방지도』 41쪽, 양상현교수 자료제공)

로 구분되어 있었고 사절유택은 경관이 좋은 외곽에 마련되어 있었을 것이며 서라벌의 범위는 六村의 각 中心地까지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전성시대의 戶數가 18萬戶에 가까웠다는 것은 백제 전성시의 호수가 15만 2천3백호(三國遺事 변한 백제조(였고 1907년의 통계에 한성(京中五部)의 인구가 18만9천여에 불과했고 경주(邑內面)의 인구가 6천3백여명에 지나지 않았다(孫福堯교수의 朝鮮時代都市社會研究 p.209)는 사실과 비교할 때 수급이 가지 않으나 이것이 신라시대의 기록상의 모습이다. 이러한 기록상의 서라벌의 모습과 지금의 경주시를 대조해 볼 때 재성인 반월성은 첨성대, 안압지까지를 궁궐내에 포함해 있었을 것이며 만월성은 “新月城 북쪽에 만월성이 있다.”(三國史記地理志)고 한 기록에 맞는 대건물지가 경주고등학교의 서편일대에서 발굴된바 있고(소위 전랑지)그 동편으로는 대사찰군을 확인할 수 있으니 서라벌의 관청지구와 사찰지구 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반월성의 사북방면은 내물왕릉을 기점으로 하여 중앙대고분군이 형성되어 수백의 대소고분들이 무리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이 지역에는 도시가 형성되지 못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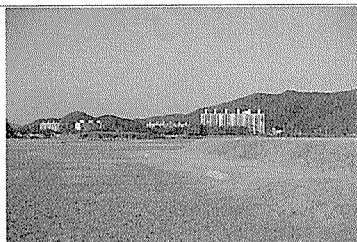
金入宅지구로 추산되는 재매정지 일대도 5陵을 비롯한 대고분과 흥륜사, 영흥사, 영묘사 등의 사찰에 가로막혀 인구밀집지대는 될 수 없다. 이렇게 볼 때 서라벌의 인구는 대지역일 수밖에 없다. 金周元이 39대 王位에 오르게 되어 있었는데도 金敬信에게 패한 것은 알천의 범람으로 입궁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것으로 上宰였던 金周元의 집은 알천밖에 있었으며 세도가들의 집이 황룡사 부근에만 있었던 것도 아니다. 오늘날 경주의 도시 계획 수립이 곤란하고 어려운 한 원인은 이와 같은 당대의 역사의 현장을 오늘에 되살릴 수 없다는 점에 있다.

2.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경주

신라가 망하고 신라(도시)가 경주로 강등됨과 동시에 경주가 급격히 쇠퇴하게 된 것은 어찌할 수 없는 일이다. 평화적인 정권교체이기는 했지만 고대국가의 특징상 首都의 기능이 상실된 도시가 걸어야 할 당연한 길이었다.

태조23년(940) 신라 王京을 경주로 함과 동시에 6부의 명칭도 변경시켰다는 것은 신라와 구별지우려는 고려 왕조의 의사표시였다. 같은 해에 대도호부가 되고 또 성종6년(987)에는 풍수도참설에 의해 三京제도가 시행될 때 中京四京과 더불어 東京이 되고 留수가 다스리는 특별시가 되었으나 도시로서의 경주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었고 오히려 세월의 흐름에 따라 축소되었다. 그것은 현종3년(1012)에 경주읍성이 축성되었는데 그 규모는 신라 성대의 도시규모에 비해 너무나 소규모이다. 즉 동의 向日門, 서의 望美門, 남의 徽纒門, 북의 洪辰門등 4대문의 위치나 성벽의 범위가 조선조시대까지 유지되었다고 보아지는데 그 범위는 현 경주시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축소된 경주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는 사건이 또 생겼다. 몽고의 침입이다. 고종25년(1238) 동경에 쳐들어온 몽고병은 황룡사 9층탑을 비롯한 사찰 궁궐 등을 불지르고 동경을 잿더미로 만들고 말았다.

國破山河在의 처참한 모습이 되었을 경주가 그 래도 제 모습을 어느 정도 갖출 수 있었던 것은 그 후도 계속 지



황룡사지에서 바라보는 아파트들 (사진 김충정)



황룡사 9층탑의 초석



경주 동천동의 한국전력 건물 (사진 김충정)

방행정의 수도가 되었기 때문이다. 지방행정의 중심지였다는 경주의 위치는 조선조시대에도 변함이 없었다. 즉 경상도의 감영이 경주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감영은 尙州 星主 大邱 慶州 등에 왔다갔다하다가 肅祖 34년 대구로 간 후에는 다시 오지 않았다. 그러나 그후도 경주는 府尹이 다스리는 특별시였으나 때로는 府使가 주재하는 도시로 강등되기도 했다. 조선조말 통감정치가 실시될 때 행정구의 변동으로 慶州君이 되고 外南面(울산으로) 杞溪面, 神光面(흥해군으로) 竹長面(청하군으로) 北安面(영천군으로) 등이 他郡으로 이속되는 등 서라벌의 영역이 대폭 축소되었다.

3. 일제치하의 경주

신라가 망한 후 경주는 망각과 파괴 속에 방치되어 왔다. 행정상의 한 중심이었다고 해서 경주를 잊지 안았다고는 할 수 없다. 민족의 고향으로서 민족문화의 발상지로서 경주를 가꾸는 일은 민족이라는 관념마저 없었던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 기대하기는 힘들었다하더라도 역사의 발상지로서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도 없었다는 것은 너무나 아쉬운 일이다. 민족의식이 생기고 국민의식이 생기게 된 20세기 초두부터 일제의 식민지가 되었으니 무엇보다도 큰 불행이었다. 그들은 통치와 지배에 편리한 방법으로 경주를 요리했다. 조선조시대의 통치 중심지였던 동헌자리에 군청, 경찰서, 법원, 검찰청, 세무서 등의 관청을 설치하고 객사인 동경관도 없애고 집경전 자리에는 日人の 소학교를 지었다. 이 관청가를 중심으로 신작로를 4방 8방으로 개설했으며 무열왕릉지구, 중앙대고분지구, 안압지의 왕궁지구, 사천왕사지구 등에 철도를 관통시키는 만행을 서슴없이 자행했다. 일제의 이와 같은 행정위주 편리위주의 도시계획은 해방된 우리에게 극복하기 어려운 흉한 유산으로 인수되었다.

4. 경주의 도시계획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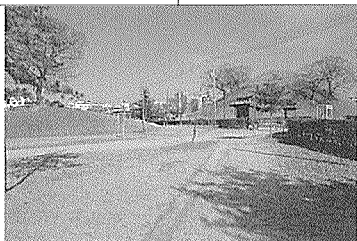
일제가 몰라갔으나 또 하나의 난관이 닥쳐왔

다. 한국동란이었다. 그 후 우리는 너무나 무서운 가난이라는 적과 대처해야 했다. 경주가 신라 멸망후 처음으로 통치자의 따뜻한 품안에서 제자리를 찾으려는 움직임을 갖게된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철학인 “나라의 발전을 민족사적 정통성 위에 정립” 하려는데서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경주의 도시계획이란 너무나 어려웠다. 그것은 일제때의 파괴가 너무 심했고 주택지가 너무나 무분별하게 이루어졌는데다가 지표조사마저 불충분해서 계획을 수립하기조차 힘든 점이다. 거기에서 여태껏 필요한 법마저 정비되지 못하여 위정자의 재량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다는 점이다. 그 결과 사적지구 미관지구 등 地區의 특성에 따라 高度의 제한을 한다던가 또는 건축제한, 금지 등의 구별이 있기는 하나 강자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이 결과 선도산지구와 금강산지구는 아파트와 같은 대형건축이 숲을 이루고 금오산도 중턱까지 인가가 들어섰으며 대왕암지역과 같은 성스러운 곳도 高度의 대상지가 되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경주의 도시계획에 劃금을 요하는 것은 고도보존법(가칭)의 제정이며 개발과 보존을 조화시키고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법의 위력으로 확정 지우는 일이다. 다음으로 시급한 것은 개발의 모델을 제시해 주는 일이며 건물의 양식까지도 제공해 주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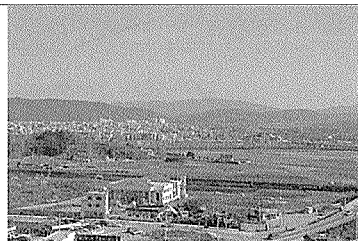
한옥지구라고 지정만 해 놓고 아무런 규제가 없으니 기와만 덮고 대문만 있으면 상관하지 않은 현실이다. 이래서 貧村을 만들어 내고 바로크건물의 느낌을 주는 시가지도 생겼다. 古都保存法에서 또 하나 빠져서는 안될 것은 경주의 영역문제이다. 신라 6부를 그 영역에 두고 명칭도 그때 그 이름을 되찾아야 할 것이다. 다행히 고속전철이 경주를 통과하게 되었다. 더욱 바람직한 것은 통합역사가 이루어져 동해남부선과 중부선의 철도가 경주시 중심부를 통과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고속전철역과 일반 철도역이 함께 있는 종합역사가 생기면 그 일대에는 새로운 역세권도시가 형성될 것이니 그 신역세권 도시가 경주의 중심시가지가 되고 현 경주시는 신라 고도를 재현시키는 문화재를 주로 하는 명실공히 서라벌 문화 도시가 되었으며 한다. 그렇게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경주의 내일의 모습일 것이며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고 믿어진다.



능의 원경 (사진 최영기)



시내에 있는 능 (사진 최영기)



경주시내 원경 (사진 최영기)